

素問 陰陽離合論의 陰陽離合에 관한 연구

김광중* · 하근호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f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on Treatise on on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in Hwangjenegyeng Somun

Kwang Joong Kim*, Keun Ho Ha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Hwangjenegyeng somun, Treatise on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is the theory of the parting and meeting about Yin-Yang. It is harmonized treatise Yin- Yang and systemic constant. Taechung and Gwangmyeng are the concretely applied form of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at human body. The parting and Meeting of Three-Yin- Three-Yang has six types symbols of circulated Yin-Yang. They have Six-meeting space structure as match like up-down, backside and front-side, left-side and right-side. These pairs express symbolized meaning of creation of Saeng-jang-shu-chang and also apply the same things. Somum Treatise on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explains acting of human body by the parting and meeting of Three-yin-three-yang as six structures of Opening-covering-axis of Three-yin-three-yang. This principal is expression of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and concretes the opening and closing of circulation process for symmetry by each acting of Three-yin-three-yang. As result, the match of six-meeting in space structure and the Opening-covering-axis of Three-yin-three-yang are the basic principal of oriental medicine about the treatise of Gyeng-Lak and the treatise of Six-Gyeng of Sanghanlon.

Key words : Somum Treatise on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three- yin-three-yang

서 론

陰陽의 相離 相合에 대한 哲學思想은 黃帝內經의 醫學思想을 貫通하는 基本思想이다. 內經의 陰陽 認識은 다양한 論理와 形式을 담고 있다. 이는 陰陽論이 定立되는 過程이 歷史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學派의 學說이 生成되고 融合된 事情을 반영하고 있다. 즉 黃帝內經의 陰陽論이 하나의 통일된 觀點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 그 說이 제기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의 添削이 가해짐으로서 各 時代와 時期에 해당하는 다양한 學派와 思想家들의 견해와 철학사상이 반영되어 융합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陰陽論에 대한 이해 또한 그러한 다양한 견해와 철학사상을 각 시대와 사상가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素問, 陰陽離合論>의 형성은 陰陽의 離合에 대한 철학사상의 발전에 기반한다. 즉 陰陽

의 概念이 擴大되고 分化된 觀念으로부터 성립된다. 그러므로 <素問, 陰陽離合論>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陰陽이 哲學的 範疇로 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聯關된 각 학파의 思维方式와 體系 및 理論과 概念形成을 연구하면 內經의 陰陽論 중 陰陽의 離合에 대한 思维體系와 理論形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이러한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¹⁾은 여러 시대 여러 사상가들의 철학사상이 융합되어 형성되어진 관계로 그 意味를 認識하고 運用하는데 있어 다양한 견해와 방법들이 주장되어 왔다.

따라서 <素問, 陰陽離合論>은 陰陽의 離合 原理가 天地萬物의 原理가 되어 인간에게도 적용되듯이 三陰三陽의 離合 原理 또한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설정하여 三陰三陽의 離合 原理와 構造 및 役割을 제시한 이론으로서 그 理論形成은 陰陽의 離와 合에 대한 哲學的 概念과 意味에 의해 형성되고 그 論理構造는 陰陽의 離合은 天地 日月의 分化로서 설정되고 三陰三陽은

* 교신저자 : 김광중,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wangj@dhu.ac.kr, · Tel : 053-770-2242

· 접수 : 2003/10/23 · 수정 : 2003/11/19 · 채택 : 2004/01/06

1) 原文을 王永 註,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醫書局, 中華民國 61年) pp. 73-8로 한다.

陰陽의 分化가 時間的 空間的으로 분할되는 것을 통해 三陰三陽이 各各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며 相互 連繫되어 일관된 흐름을 形成할 수 있게 設定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陰陽離合論에 나온 陰陽離合에 대한 원문 자체에 대한 서지학적인 연구가 많이 있었으나 원문의 歷史的인 過程을 哲學思想的 觀點에서 陰陽離合論의 理論形成과 論理構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

이에 本研究에서는 陰陽離合論의 陰陽離合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陰陽離合論의 陰陽離合이 제기하는 問題意識을 따라 陰陽離合論의 陰陽離合의 理論形成과 論理構造를 把握하고자 한다.

본 론

1. 陰陽 離合의 위상설정

1) 陰陽離合의 개념해석

陰陽의 개념을 內外陰陽으로 표현함으로써 內, 外, 中이라는 陰氣 陽氣 中氣의 관계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根'을 통해서는 三陰三陽의 分化를 人體 經絡과 結부시킴으로서 그 개념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집약하면 위상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陰陽離合論'에서의 陰陽의 離合은 그 논리구조가 먼저 一인 道(道는 一로서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가 分化하여 '天은 陽이고 地는 陰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다음 다시 天은 陰陽으로 分化하여 天의 陽 天의 陰으로 分化(一分爲二)하고 地는 三陰과 三陽으로 分化(一分爲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天地分化된 陰陽을 上下로 위치지움으로써 만물을 天覆 地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사람이 이러한 원리에 相應하여 天의 陰陽은 人의 廣明과 太衝이 되고 地의 陰陽은 三陰과 三陽으로 분화되어 人의 太陰 少陰 厥陰 太陽 陽明 少陽으로 된다는 논리구조를 갖는다. 이것이 陰陽離合論의 天地陰陽이 人體에 應하고 地의 三陰三陽이 人體에 應하는 원리에 입각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陰陽의 離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비록 '天爲陽 地爲陰.....'의 문장이 '陰陽繫日月論'이나 內經의 중에 나오는 문장이고 설사 後代에 첨가된 문장일 것이라는 추측이 되더라도 道一(其要一也)은 天地日月로 분화하고 三陰三陽으로 분화하여 각각이 그 말은바 소임을 다하는 陰陽離의 觀點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陰陽離의 모습도 '命曰一陽', '命曰一陰'으로 이해하였다.

셋째, 陰陽의 離를 數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數와 象이 三陰三陽의 表現방법으로 쓰이고 있음을 뜻한다.

넷째, '積傳爲一周' '陰陽奪重奪輕'과 같이 循環論의 觀點에 있다. 만물의 이치(三陰三陽의 원리)가 終始가 있지만 결국은 순환하여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生成 分化 循環이 陰陽離의 觀點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절에 '相成也'로 끝맺음으로써 陰陽分化가 결국은 陰陽相成이라는 陰陽離의 表現을 통해 결론을 내림으로서 生成 分化 순환이 하나의 道(合)에 귀결됨을 표현하고 있다.

2) 陰陽離合의 최근 연구동향

첫째는 三陰三陽에 關해 윤창열은 三陰三陽을 太少陰陽의 四象과 비교하여 考察하고 干支와 六氣의 相互關係를 고찰함을 통해 三陰三陽에 대해 결론적으로 論하기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四象의 '太陽 少陰 太陰 少陽'과 三陰三陽의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의 내용을 用語가 같다고 하여 混用하여 왔는데 陰陽의 二次分化인 四象과 六氣의 變化인 三陰三陽과는 二次元을 달리 하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兩者사이에는 전혀 關連이 없다. 三陰三陽은 寒暑燥濕風火의 六氣에 대한 標氣로서 始中終과 本中末을 갖추고 있는 事物生化의 개념이며 生命과 陽氣가 發生 成長 統一 完成되는 一周期의 變化狀態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認識하였다.

둘째는 三陰三陽의 陰陽屬性과 開闔樞理論 및 氣血多少에 대해 <<黃帝內經太素>> <陰陽合篇>을 중심으로 연구한 이용범은 "三陰三陽은 六氣에 의해 유발된 陰陽의 變化狀態로서 人體에서는 臟腑와 經絡 皮膚에 걸쳐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여섯 가지의 氣運의 흐름을 의미한다. 三陰三陽의 變化順序는 人體에서의 陽氣變化를 爲主로한 屬性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하여 <素問> 運氣篇에 나오는 客氣의 三陰三陽의 變化順序는 天氣를 爲主로 한 것이며 主氣의 三陰三陽의 變化順序는 地氣의 五行變化를 爲主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黃帝內經太素>>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변화순서에 근거한다면 太陽과 少陰은 각각 陰陽勢力의 基盤으로 陽明과 太陰은 그 陰陽勢力의 전성기로 少陽과 厥陰은 陰陽勢力의 변화를 조절하는 樞紐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 表裏로 묶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며 經絡의 흐름에 있어서는 太陽과 少陰이 人體의 뒷부분을 陽明과 太陰이 人體의 앞부분을 少陽과 厥陰이 人體의 옆을 각각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開闔樞理論에서는 三陰을 內로 三陽을 外로 보아 內外에서 각각 關의 禁閉 闔의 開閉 樞의 轉動의 役割이 잘 수행될 때 생명력이 정상으로 발현한다. 開闔樞를 이해하는 데는 三陰三陽을 太陽-少陰, 陽明-太陰, 少陽-厥陰으로 구분하는 表裏論의 概念으로는 불가능하며 內와 外에서의 役割을 중심으로 한 太陽-太陰(開), 陽明-厥陰(闔), 少陽-少陰(樞)의 별도의 개념이 필요로 한다. 또한 關는 '閉禁'의 역할이므로 '關'으로 해야 한다. <素問> <靈樞>의 氣血多少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三陽의 氣血多少는 일치하는데 三陰의 氣血多少는 상반된 표현이 함께 존재하여 <<黃帝內經太素>>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三陰의 氣血多少가 體用的인 觀點에서의 體인 內容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現狀인 用的 측면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였다. 셋째는 三陰三陽을 陰陽의 運動으로 보고 陰陽運動으로서 三陰三陽의 開闔樞運動을 論한 경우이다. 박찬국은 "<<素問>> <陰陽離合論>을 근거로 하여 經絡의 生成原理를 말해보면..... 五行은 內의 運動이요 陰陽은 外의 運動이다. 外의 運動이란 단순한 氣의 運動이므로 五行의 金木水火土가 필요치 않고 開闔樞運

2) 윤창열, 三陰三陽에 關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4: 2 1995), p. 352.

3)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학회지, 10: 1 1996), pp. 487-8.

動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經絡의 運動이란 內의 지시를 받아 밖에서 이루어지는 氣의 運動이다. 그리고 이 經絡에 左右上下와 太少陰陽의 分化가 있으니..... <素問, 陰陽離合論>에 그 說이 나오고 있다. 즉 太陽은 開라하고 陽明을 闔, 少陰을 樞라 하여 三陽의 開闔樞를 하고 三陰에서는 太陰을 開, 厥陰을 闔, 少陰을 樞라하고 있다. 이러한 開闔樞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인체의 經絡의 배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陰陽離合論>을 보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廣明과 太衝이라 하겠다. 廣明은 꽃 봉우리가 벌어지듯이 사람이 팔다리와 머리꼬리가 배꼽에서부터 갈라져나간 것을 말하고 太衝이라 함은 바로 사람신체에서 과일의 꼭지와 같은 부분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地가 바로 陰의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少陰이 씨이고 太衝은 少陰으로부터 나온 本과 같은 것이다. 少陰은 뿌리가 되고 太陽은 잎이 되는 것이다. 腎이 水를 主하여 五臟六腑의 精을 받아 藏하는 것이 少陰 太衝 太陽의 氣에 관계된 것이요 脾가 胃를 위하여 그 津液을 全身經絡에 보내는 것이 바로 太陰 廣明 陽明의 기능에 관계된 것이다. 開闔樞라 함은 우리 인체에서 氣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있어서 들어오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闔이라 하였고 내보내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開라 하였고 樞란 그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陽明을 闔이라 한 것은 外部로부터 穀氣를 들여오는 일을 주관한다는 뜻이다. 少陰이 樞가 되는 것은 陽明의 穀氣가 太陽으로 나가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는 뜻이다. 太陽이 開가 되는 것은 陽明의 穀氣가 소모되고 있다는 뜻이다. 일단 精으로 합성된 것은 다시 少陰에서 출발하여 太陰으로 나가면서 精氣는 소모되고 대신에 形氣가 축적되면서 形이 커진다. 그런데 발가락에서는 少陰이 발바닥의 가운데를 흐르고 厥陰이 엄지발가락으로 흐르는 것은 발바닥이 항상 체중에 눌러서 氣血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異常的인 현상이다. 사람은 계절에 따라 차이를 두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계절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陰陽의 差를 이용하여 生長收藏을 수행한다. 즉 春은 起立之物로 五臟六腑가 없어 계절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는 生長收藏을 수행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은 정신을 갈무리하는 五臟이 있고 또 이를 돕는 六腑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生長收藏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三陰三陽이란 인체에서 단순히 陰陽의 氣적인 差異를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經絡이라는 구조가 있을 수 없고 形體가 있을 수 없다. 少陰은 少陰으로서 그 氣의 특징이 있고 太陰은 太陰으로서 그 氣의 특징이 있을 따름인 것이다. 즉 젊은이와 늙은이가 형태와 구조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氣가 다른 것이다”⁴⁾고 하였다. 이 글은 開闔樞를 ‘陽化氣 陰成形’의 구조로 이해하였으며 三陰三陽을 春에 비유하여 해석하였다.

넷째, 陰陽離合論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琴堉樹는 그의 논문에서 “自然界의 陰陽과 人體에서의 陰과 陽이 서로 합하고 分離되는 理致, 經絡상의 三陰 三陽經의 離合과 根結 表裏 開闔樞의 概念과 關係를 올바르게 把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歷代醫家の 註釋을 比較 考察하고 本人의 知見으로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註釋을 爲主로 直譯과 意譯을 並行하여 本編을 解釋하고 考察”⁵⁾하여 “本編의 內容中 陰陽은 經絡을 合稱하며 ‘三陰三陽之離合’이라 한 것이 人體經絡의 離合을 더욱 명확하게 指稱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本文에 사용된 上下前後 등의 개념은 不確實하거나 그 判斷基準點이 一定하지 않다. 開闔樞란 人體內의 三陰經 三陽經 또는 그 該當 臟腑의 生理 또는 病理的 特徵을 總括的으로 表現한 것이다”고 보아 “陰陽離合論은 陰陽의 離合, 三陽의 離合, 三陰의 離合으로 三分되며..... 開闔樞概念은 自然界의 陰陽變化의 作用을 人體에 適用시켜 三陽三陰經의 經氣가 人體의 表, 中, 離라는 位置에서 各 經絡이 가진 本來의 機能을 말한 것으로 思料된다”⁶⁾고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玉到勳은 “陰陽離合論’은 素問 編在上 陰陽을 주로 論한 第一卷의 第六篇에 있으나 내용은 일부가 經絡을 논하고 있어 靈樞의 根結篇과 겹쳐 表裏를 이루고 楊上善의 太素에는 陰陽離合이라는 제목으로 五卷에, 또 張介賓의 類經에는 根結과 함께 經絡類에 包含되어있다”⁷⁾고 ‘陰陽離合論’의 편재 구성을 論한 후 “陰陽離合論은 陰經과 陽經의 離合하는 이치를 논한 것으로 自然에서의 陰陽變化를 人體에 適用시켜 經絡을 例로써 三陽과 三陰의 性格을 설명했다. 특히 三陰三陽이나 經絡에 대한 位置概念은 不分明한 가운데 많은 學者들의 論難이 되어 이의 整理와 解釋이 切實한 반면 三陰三陽의 機能을 比喩한 開闔樞라는 用語는 비록 內經 後의 臨床書籍에서 발견하기 힘들지만 그 原理의 意味는 後世에 지대한 影響을 끼쳤다. 이에 歷代註家들의 註釋을 중심으로 그 內容을 把握하고 臨床的 意味를 考察”하여 三陰三陽에 대해서는 “本篇의 內容은 크게 陰陽의 離合, 三陽의 離合, 三陰의 離合으로 三分되며 陰陽의 離合에서는 陰陽의 可分性과 統合性을 설명했고 三陽의 離合과 三陰의 離合에서는 陰陽의 可分性을 足六經을 예로 位置概念을 導入하여 설명하면서 三陰三陽의 別名(例; 陰中之陽)과 開闔樞理論을 제시했다. 三陰三陽을 註家들은 經絡 臟腑 運氣概念으로 풀이하려 했으며 本篇 著作時 이 세 가지 概念을 混同하여 썼을 가능성이 있지만 現代에서는 經絡에 準하여 解釋함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된다”⁸⁾고 하였고 開闔樞에 대해서는 “開闔樞의 機能을 現代的 意味로 比喩하면 食物에 있어서 잎과 뿌리줄기와 같아서 開의 잎은 大氣와 接하여 에너지를 生産消耗하고, 闔의 뿌리는 營養分을 吸收하고 貯藏하며, 樞의 줄기로서 에너지를 運送 調節하는 한편 外邪의 侵入 또한 表의 잎, 半表半裏의 줄기, 裏의 뿌리의 順으로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⁹⁾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林鎮錫은 “三陰三陽이나 經絡의 위치개념은 분명치 않아서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되어 정리와 해석이 절실한 반면 三陰三陽의 기능을 비유한 開闔樞라는 용어는 비록 내경 이후 임상서적에서 발견하기 힘들지만 그 원리와 의미는 후세에

4) 박찬국,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대한원전의사학회지, 9; 1, 1995), p 2-9.

5) 금경수, 素問, 陰陽離合論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1.
6) 금경수, 전계서, 1992, pp. 41-2.
7) 옥도훈, 홍원식,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대한 고찰, (대한원전의사학회지, 3; 1, 1989), pp. 504-5.
8) 옥도훈, 홍원식, 전계서, p. 551.
9) 옥도훈, 홍원식, 전계서 p. 548.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三陰三陽의 위치개념은 명확한 반면 關闔樞라는 용어는 오히려 후세 註釋家들이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陰陽離合論’에서는 三陰三陽으로 인체의 구역을 겉과 속 그리고 전후 좌우로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하여 후세에 경락학설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開, 闔, 樞’라는 용어는 三陰三陽이 담당하는 인체 구역을 문의 앞, 뒤, 측면에 빗대어 빗장, 문짝, 문 지도리(문틀)로 비유한 설명일 뿐 三陰三陽의 기능이나 생리적 특성을 나타낸 개념이 아닌 것으로 고찰¹⁰⁾하여 “陰在內, ‘陽在外’는 인체를 겉과 속으로 나눈 단순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陰과 陽의 전후와 표리개념은 몸통을 중심으로 하고 四肢는 생략하였고, 三陰三陽은 경맥 구역을 나누는 원시개념으로서 手足 三陰三陽을 통합한 개념이다. ‘陰中之陰’과 ‘陰中之陽’은 땅에서 나오지 않은 곳이 陰의인 곳이며, 땅에서 솟아 나온 부분을.... 지구에 빗대어 겉을 陰中之陰, 속을 陰中之陽이라고 한 정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少陰之上 太陽’도 ‘上’자의 의미는 서론에서 제시한 ‘則出之者’를 인체에 그대로 도입한 개념으로서 인체를 上下로 구분해 놓고 少陰의 ‘윗 부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등 쪽 내부인 少陰에서 ‘솟아 나온’ 등 표면을 의미한다. 廣明은 三陰三陽이 분화하는 영역을 구분하고 빛을 받는 전면을 강조하는 용어일 뿐이다. 신체의 앞부분은 太陽을 받고 있어서 밝은 부분인데 (廣明) 전면에서 속 부분은 太陰이 되고 太陰에서 솟아 나온 전면 겉 부분을 陽明이라고 한다. 太陽 陽明 少陽을 少陰之上, 太陰之前, 厥陰之表라고 하여 위치개념을 각각 上, 前, 表로 달리 나타냈지만, 사실은 솟아 나온 표면을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서 厥陰이 인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지적이 없다. 다만 인체의 속 부분인 厥陰에 해당하는 곳에서 겉 부분을 少陽이라 부른다고 했을 뿐이다. 太陽과 陽明을 이미 전후개념으로 활용하였으므로 표면에서 少陽이 배속될 부분은 陽地와 陰地가 교차하는 부분밖에 남지 않는데 이 부분이 측면에 해당한다. 厥陰의 별명으로 ‘陰이 다했다’고 하였으므로 少陰의 앞에서 太陰까지 극히 작은 구역을 암시하고 있다. 少陰에 속하는 經絡을 현재의 銅人圖에서는 복부에 묘사하고 있지만 ‘陰陽離合論’에서 실제구역은 등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¹⁾고 이해하였으며 關闔樞에 대해서는 “關闔樞를 六氣로 설명해도 상호 관련성이 없다. 太陽과 陽明, 厥陰과 少陽, 少陰과 太陽의 짝을 關闔樞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 상호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關闔樞는 후대에 이미 關闔樞를 잘못 옮겨 쓴 것으로 평가한다. 關闔樞는 각각 명사로 쓰였으며 문헌적 고증을 통하여 關闔樞가 적절하고 關闔樞란 빗장, 문짝, 지도리에 해당한다. 三陰과 三陽은 문을 빗장 문짝 지도리로 분리하여 본 개념이고 一陰과 一陽은 문을 닫고 관찰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陰陽이 분화하여 각각 일정한 구역을 담당하는 三陰三陽은 인체의 겉과 속을 의미하면서도 서로 다른 깊이 차이나 생리의 특징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반

드시 열린다, 닫힌다, 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關闔樞로 풀어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關闔樞를 잘못 썼다는 한가지 가정만으로 이론적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 이상의 추론에서 ‘陰陽離合論’의 關闔樞는 단지 문을 구성한 세 요소로 구역을 빗댄 개념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¹²⁾고 하였고 搏而勿浮와 搏而勿沈에 대해서는 “搏而勿浮는 겉 문을 닫아서(搏)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勿浮) 상태로 搏而勿沈을 속 문을 닫아서(搏) 안으로 물건을 넣지 못하는(勿沈)상태로 풀이한다”¹³⁾고 인식하고 해석하였다.

2. 陰陽 離合의 이론형성

1) 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

繫辭傳에는 “乾은 純陽으로 ‘크게 生하고’ 坤은 純陰으로 ‘널리 生 한다’”¹⁴⁾고 하였다. 이는 “乾과 坤은 廣大하기가 天地에 배합되고 變通함은 四時에 배합되며 陰陽의 의미로는 日月에 배합되어 天地 日月 四時의 陰陽에 대해 論한 것”¹⁵⁾이다. 첫째, 이 문장은 天地를 陰陽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 문장은 ‘天覆地載 萬物方生’에 연결된다. 즉 萬物은 天地陰陽의 調和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천지를 만물과 연관지어 해석하는데 대해서 老子는 <<老子>> 제5장에서 天地를 풀무로 보고 “비어있지만 고갈되지 않고 ‘한번작용하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만물을 발생시킨다’”¹⁶⁾고 하여 天地를 만물의 母胎로 보았고 莊子は <<莊子>> <<達生>>에서 ‘天地는 萬物의 父母이다’¹⁷⁾고 하여 天地를 만물의 根本으로 간주하였고 “<<管子>>의 <宙合>이나 <內業>은 현존하는 樓下道家의 대표적 저작인데 ‘하늘은 精氣를 제공하고 땅은 形體를 제공한다. 이 둘이 합해져서 사람이 된다’ ‘하늘은 아비가 되고 땅은 어미가 되어 만물을 낳고 또 모두 통괄한다고 하였으며 <形勢>에 ‘하늘은 만물을 다 덮고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땅은 만물을 다 신고서 그것들을 기른다’”¹⁸⁾고 하였다. 이러한 天地陰陽과 天覆地載의 관점은 道家에서 유래하였고 이것이 <<易傳>>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易傳>>의 陰陽論은 陰陽離合論의 陰陽論과 그 기본인식이 같다.

둘째, ‘天爲陽 地爲陰’은 天上 地下的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된다. 그러해야 天覆地載가 가능해지고 이러한 조건에서 만물이 방생하는 것이다. 이 天上 地下的 구조에서 未出地者가 陰處가 되고 이 陰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則出地者)은 陰中の 陽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陰을 다시 陰陽으로 나누고 陽을 다시 陰陽으로 나누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巽卦와 震卦를 구성하는 방법과 유사하며 邵雍의 一分爲二나 大衍之數에서의 陽進陰退에 의한 四象構成과는 방법이 다르다.¹⁹⁾ 그러므로

12) 임진석, 전계서, pp. 20-5.

13) 임진석, 전계서, p. 25.

14) “夫乾....是以大, 夫坤....是以廣”(김석진, 전계서, p. 64).

15) 朱伯崑의 지음, 김학권 옮김, 주역산책 (서울: 예문서원, 2001), p. 9

16) <<老子>> 제5장 “天地之間 其猶橐籥乎 虛而不屈 動而愈出”(王弼注, 임재우 옮김, 전계서, p. 61).

17) <外篇, 達生> 第十九, “天地者 萬物之父母”(莊子 著, 안동림 譯註, 전계서, p. 463).

18)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계서, pp. 48-9.

19) “二分爲四는 符對의 관점에서 均衡의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陽進陰退는 由陰爲陽 由陽爲陰의 순환의 관점이며 ‘少陰之上太陽의 陰中

10) 임진석, 임진석,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關闔樞,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2, 1998), p. 15

11) 임진석, 전계서, pp. 17-20.

陰中之陰 陰中之陽은 天地上下의 공간구조로 해석하고 음양의 개념이 空間속에서 확대되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日爲陽 月爲陰은 先秦以前的 古代로부터 생겨난 관념이지만 여기서는 大小月 三百六十日成一歲와 生因春 長因夏 收因秋 藏因冬의 四時概念과 연결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즉 여기에서의 日月은 時間概念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老子는 ‘움직임에는 時를 중시한다고 하였고 帛書 <<黃帝四經>>에서는 ‘四時의 度數를 따른다고 하여 時수가 변화하는 법칙을 파악하게 하여 時수에 적응토록 하고 이로써 생산과 생활을 적절하게 안배한다”²⁰⁾는 의미이다. 즉 稷下道家는 時수를 중시했다는 것이고 黃老道家가 중시하던 ‘역법에 의한 다스림’은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帛書 <<經法. 論>>에서는 “하늘은 하나를 잡음으로써 셋을 밝힌다. 태양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틀림없이 떠오르고 지고하여 남과 북의 방위가 명료하게 되니 이것이 태양이 운행하는 법칙이다. 달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틀림없이 생겨났다 이 지러져 나아감과 물러남에 일정함이 있으니 이것이 달이 운행하는 법칙이다. 뭇 별들에도 운행하는 법칙이 있어 그 운행하는 자리를 잃지 않으니 이것은 별지리의 운행에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²¹⁾고 하였다. 결국 <<繫辭傳>>의 乾은 純陽으로 ‘크게 생하고’ 坤은 純陰으로 ‘널리 생한다’ 乾과 坤은 廣大하기가 天地에 배합되고 變通함은 四時에 배합되며 陰陽의 의미로는 日月에 배합²²⁾되어 天地 日月 四時의 상호관계를 論한 것과 유사하다.

넷째 그러므로 ‘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이 비록 <<黃帝內經>> <<靈樞. 陰陽繫日月論>>의 문장과 같고 ‘陰陽繫日月論’의 문장이 “寅月.....”로 시작되는 干支紀年式의 五運六氣의 인 經絡 해석과 결부된다고 해서 干支와 五運六氣를 결합하여 ‘陰陽離合論’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大小月을 干支紀年式으로 인식하고 표현한 것은 漢武帝이후이다.²³⁾ 하지만 ‘陰陽離合論’에서는 干支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陰陽離合論’은 <<黃帝內經太素>>의 陰陽合篇에 기재되어 있고 陰陽合篇은 <<陰陽繫日月論>>과 <<靈樞. 根結>>과 <<陰陽離合論>>과 <<甲乙經>>의 기재에 근거한다고 보고 <<黃帝內經太素>>가 王冰의 <<黃帝內經>>보다 편찬연대가 이르므로 原義에 가깝다고 보아 三陰三陽의 月別配屬에 의거하여 三陰三陽의 陰陽屬性과 表裏關係 및 六氣의 標本配屬을 해석해야 한다”²⁴⁾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의 문장은 陰陽과 四時의 관계를 설정하고 陰陽과 四時의 和음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 만물을 生長收藏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天地四塞, 陰陽之變

天地四塞과 陰陽之變은 天地日月의 陰陽과 四時가 失常하였을 때 나타나는 상황을 표현한 문장이다.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자.

之屬은 待對와 循環이 모두 포함된 由陰出陽이다.

- 20)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계서, p. 97.
- 21)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계서, p. 236.
- 22) <<繫辭傳, 上>> 제6장 “廣大配天地, 變通配四時, 陰陽之義配日月”(김석진, 전계서, p. 65).
- 23) “<<靈樞. 陰陽繫日月論>>에 ‘寅者 正月生陽也’는 분명히 漢武帝가 太初曆을 반포한 이후의 기재이다”(조학준, 윤창열, 황제내경의 성서시대에 대한 고찰, (대전대학교학연의학연구소논문집, 7: 1, 1998), p. 116)
- 24)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회지, 10: 1 1996), p. 448.

첫째, 常이란 恒常됨이다. 失常은 이러한 常이 깨어진 상태이다. 즉 變化이다. 道家에 있어서 변화는 變通²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常과 失常은 변화를 전제로 한 恒常됨을 표현한다. 老子에게 있어서 常은 일정한 法則을 의미한다. 陳鼓應에 의하면 “變通은 易經의 주제가운데 하나이다. <<易經>>에서는 사물의 변화를 논할 때 ‘기울지 않은 평탄함이 없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는狀況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소박한 경험이 老子에 이르면 체계를 띤 이론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莊子와 <<易傳>>에 이르면 老子의 反復과 變通觀은 더욱 발전한다고 전제하면서 老子는 ‘사물이 對立 面으로 전회한다’(사물을 陰陽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전회에는 ‘끝나면 시작되고, 새로워진 것이 다시 시작되는’²⁶⁾ 과정이 있음을 지적한다. 老子는 변화 속에서 일정한 ‘법칙’(常)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²⁷⁾고 하였다. 그러므로 失常은 일정한 生成 變化의 法則이 깨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 ‘陰陽離合論’에서의 常의 인식은 陰陽에 의하고 常의 역할은 天地陰陽이 日月과 四時로 分化하여 그들의 相互關係에 따라 生長收藏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日月과 四時は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莊子は “해와 달이 빛나니 사철이 순조롭게 운행된다”²⁸⁾고 하여 四時(四季節)변화는 그 중심에 日月이 있음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四時의 운행은 日月에 의하며 四時는 日月陰陽의 分化로 된다. 또한 <<莊子>> <<知北游>>에서 “日月不得不行”²⁹⁾라 하였는데 이는 四時循環의 根據가 日月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를 <<繫辭傳>>에서는 “變通하는 것은 四時보다 큰 것이 없다”³⁰⁾고 하여 ‘봄이 변해서 여름으로 통하고 여름이 변해서 가을로 통하고 가을이 변해서 겨울로 통하고 겨울이 변해서 다시 봄으로 통하니 변통이 아니면 사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³¹⁾고 하였다. 이것이 後代에 발전하여 春夏-陽, 秋冬-陰의 구조가 가능한 원리가 되고 ‘陰陽離合論’에서 ‘春夏는 陽子之正 하고 秋冬는 陰爲之主하는 것으로 이해한 바탕이 된다.

셋째, 老子와 莊子의 이러한 관점은 戰國時期에 이르면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사계절과 八卦를 서로 연결한 것은 戰國時代 黃老道家의 ‘天地와 陰陽, 四時와 日月’의 思想이라 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黃帝四經>> <<道原>>에 ‘天地陰陽, 四時日月’이라 했고 <<黃帝四經>> <<經法, 觀>>에 ‘動作之時, 因而勒之..... 分爲陰陽, 離爲四時’(고요할 때와 움직일 때 따라 알맞게 제약한다. 陰陽으로 나뉘고 四時로 분리된다)라 했고 帛書 <

- 25) <<繫辭傳 上, 12章>> “化而裁之 謂之變 推而行之 謂之通”(김석진, 전계서, p. 167).
- 26) 이는 <<繫辭傳>>의 ‘原始反終’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즉 繫辭傳은 事物의 循環反復을 ‘生生’하는 ‘끝없는 순환 반복의 과정’으로 이해하지만 辨證法的 唯物論은 存在가(그 부정성으로 인해) 하나의 순환과정을 거치면 다음 단계의 존재(부정성을 止辯한)는 새로운 존재로 되는 순환 반복의 과정을 수행한다. (참조: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김민석 옮김, 반두링론 (서울: 도서출판 새길, 1987), p. 147).
- 27)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계서, p. 128.
- 28) <<外篇, 天道>> 第十三, “日月照而 四時行”(莊子 著, 안동립 譯註, 전계서, p. 356).
- 29) <<外篇, 知北游>> 第二十二, “日月不得不行”(莊子 著, 안동립 譯註, 전계서, p. 541).
- 30) <<繫辭傳, 上>> 제11장 “變通 莫大乎 四時”(김석진, 전계서, p. 152).
- 31) 김석진, 전계서, p. 152-3.

分化하여 天地萬物を 덮고 실어 生長收藏의 변화를 주재하고 그것이 恒常적으로 循環하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흐름을 표현한 象徴이다. 그러므로 三陰三陽이 인간에 應하는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陰陽離合論’에 표현된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 今 三陰三陽의 應 陰陽

‘陰陽離合論’에서의 三陰三陽은 陰陽이 天覆地載하고 萬物方生하여 天地 日月이 四時를 주재하여 生長收藏이 恒常적으로 일어나는 조건에서 分化하는 象이다. 이를 원문에서는 “..... 未出地者 命曰陰處 名曰 陰中之陰 則出之者 命曰 陰中之陽 陽予之正 陰爲之主 故.....”라 표현하였다. 天地日月이 만물을 덮고 실어서 生長 변화 순환하는 것의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즉 만물은 陰處에서 생겨나고 陰處는 地上에 실리기 前의 상황이다. 여기서 지상에 실리게 되면서 陽으로의 役割이 發生한다. 이것이 陰中之陽이다. 결국 天地萬物은 陰陽이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그 속에 陰陽을 모두 갖추어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만물은 天地陰陽의 分化象인 日月四時의 변화 속에서 陽予之正 陰爲之主의 調和와 役割에 의해 生長收藏을 反復 循環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數로서 표현하면 三陰과 三陽이 된다. 결국 三陰三陽은 陰陽의 조화와 역할의 遂行을 표현한 象徴이며 그것의 ‘要’는 陰陽이요 그것의 조화와 역할은 ‘陽予之正 陰爲之主’가 되는 것이다.

2) 陽予之正 陰爲之主

‘正’이란 “陽爻가 陽位에 있거나 陰爻가 陰位에 있는 것”⁴³⁾을 말한다. 이것이 乾卦와 坤卦를 해석하는 卦辭(‘위대하다도 乾元이여 萬物은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고 그것이 大自然을 통솔한다. 지극하구나 坤元이여 만물은 그것에 의지해서 生長하고 하늘의 뜻에 따른다’⁴⁴⁾)가 되고 陰陽觀과 結合하여 <<黃帝四經>> <綱> “陽에 속하는 모든 것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바름(正)을 존중한다. 陰에 속한 모든 것은 땅을 본받고 땅의 德은 평안함 느긋함 올바름 고요함이다”⁴⁵⁾· 이는 天動地靜說의 한 표현으로 된다. 이것이 方位가 되어 四正(東西南北)이 된다. ‘予’란 “베들의 씨실을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게 하기 위한 제구 북을 본뜬 모양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밀어 보냄의 뜻에서 轉하여 ‘주다’의 뜻을 나타냄. 平聲일 때는 假借하여 ‘나’의 뜻으로 쓰임을 形象한 것”⁴⁶⁾이다. 그러므로 ‘陽予之正’은 天과 日(태양)이 陽이 되어 陰處로부터 萬物을 地上으로 轉移하여 보내줌이 바른 역할이며 바른 ‘常’(순환 변화의 항상된 법칙)임을 의미한다. ‘主’란 “등간 접시 위에 불이 타고있는 모양을 본뜬. ‘炷’의 原字. 轉하여, 일정기간동안 머물러 책임을 지는 者, 當者, 주인 등의 뜻을 나타냄”⁴⁷⁾이라 한다. 그러므로 ‘陰爲之主’는 地와 月(달)이 陰이 되어 만물을 陰處에 靜(고요함, 움직임이 없는 듯이)하게 간직하여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生長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3) 三陰三陽의 名

三陰三陽은 一陰一陽의 分化(命曰 一陰, 一陽)로서 이름을 갖고 있는데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厥陰, 少陰이다. 哲學에 있어 名稱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면 “名(名稱)과 實(事實)의 本質 및 그 관계를 파악”⁴⁸⁾하는데 있다. 먼저, 孔子는 이를 正名이라 했는데 正名이란 “우리가 실제 사물에 붙인 이름(名)과 그 內實(實)은 일치되어야 한다. 이름마다 어떤 含意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집합의 사물들의 본질이며 그 집합의 사물에 이 이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물들은 이 理想的 본질과 일치되어야 한다”⁴⁹⁾는 것을 이른다. 다음으로, 諸子 六家の 하나인 名家의 公孫龍⁵⁰⁾은 名과 實의 관계를 同一과 差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三陰三陽은 이름이 가지는 상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4. 陰陽 離合의 論理構造

1) 陰陽의 分化和 廣明, 太衝

三陰三陽이 인체에 應함은 먼저 人體陰陽이 分化(一分爲二)하고 陰陽分化的 조건 속에서 三陰三陽이 위치 지워 진다. 그러므로 三陰三陽의 分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陰陽의 分離가 전제되어야한다. ‘陰陽離合論’에서의 인체의 陰陽分離는 聖인이 南面하여 섰을 때 앞(前)은 廣明이고 뒤(後)는 太衝이 된다. 廣明이란 廣과 明의 造語이다. 廣이란 “辭典의인 의미로는 ‘크다’의 뜻이다. 크고 넓은 지붕의 뜻에서 ‘넓다’의 뜻을 나타냄”⁵¹⁾이라 한다. 周易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地道廣이란 사람은 땅의 廣大한 道를 본받는 것으로 땅의 道가 넓다는 것은 땅의 道가 廣大하여 만물을 두루 실어 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⁵²⁾와 같이 ‘넓게 포용함’⁵³⁾의 의미로 통한다. 明이란 “日月이 합쳐져 ‘밝다’⁵⁴⁾는 의미”⁵⁵⁾로 쓰여진다. 그러므로 廣明이란 사람이 서있을 때 天의 日(태양)의 빛이 사람을 덮어 넓고 밝게 비추이는 부분을 표현하여 陽을 의미한다 (반대로 밝지 않은 부분-빛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는 음이 된다) 太衝이란 太와 衝의 造語이다. 太란 사전적 의미로는 “泰’의 古文으로 큰 위에 더 크다. 심히, 매우의 의미이며 이때 크다는 것은 용적이나 면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⁶⁾고 한다. 또한 衝이란 “路上에서 탕 부딪히다’의 성어에서 유래하여 큰 거리 즉 四通五達하는 길을 의미”⁵⁷⁾한다. 그러므로 太衝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실을 수 있는 용적(空間)을 가지며 이것은 四通五達하여 무엇이든 실을 수 있어 사람의 각

43) 廖名春, 外 2人 著, 심경호 옮김, 전계서, p. 24.
 44) 朱伯崑 외 지음, 김학권 옮김, 주역산책, 전계서, p. 106.
 45) <<黃帝四經>> <綱> “諸陽者 法天 天貴正 諸陰者 法地 地之德安徐正 靜”(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계서, p. 268)
 46) 민중서림편집국, 漢韓大字典 (서울: 민중서림, 2000), p. 126.
 47) 민중서림편집국, 전계서, p. 110.

48) 馮友蘭 著, 鄭仁在 譯, 전계서, p. 119.
 49) 馮友蘭 著, 鄭仁在 譯, 전계서, p. 71.
 50) 馮友蘭 著, 鄭仁在 譯, 전계서, pp. 119-20.
 51) 민중서림편집국, 전계서, p. 693.
 52)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계서, p. 85.
 53) <繫辭傳, 上> 제6장 “夫易 廣大矣(땅과 같이 넓고 하늘과 같이 한없이 크다)”(김석진, 전계서, p. 63).
 54) <繫辭傳, 下> 제5장 “日月相推而明生焉”(김석진, 전계서, p. 217).
 55) 민중서림편집국, 전계서, p. 928.
 56) 민중서림편집국, 전계서, p. 501.
 57) 민중서림편집국, 전계서, p. 1853.
 57) <繫辭傳, 下> 제10장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김석진, 전계서, p. 290).

종 附屬物을 간직하여 그것에 의지하여 생장하게 하는 것을 표현하여 陰의 의미이다. 결국 廣明과 太衝은 形而上의 道가 分化하여 人체(形)에 구체적으로 應⁵⁸⁾하여 道一이 分化한 陰陽之象에 대한 표현으로 되는 것이다.

2) 四象分化和 太 少 陰陽

인체의 陰陽分화는 사람이 生長收藏의 循環 變化를 통해 生命體를 維持하는 基盤이 된다. 陰陽分화는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데 이것을 표현한 방법이 三陰三陽이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生命體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자신을 유지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象이 三陰三陽의 特性和 開闔樞 關係의 설정을 통해 보여진다. 하지만 三陰三陽의 分化는 陰陽의 三分이기는 하나 그 개념의 성립과정에 四象分化的 측면이 융해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陰陽의 특성이 陰中之陽(太陽, 陽明) 陰中之少陰(少陽) 陰中之陰(太陰) 陰中之少陰(少陰) 陰之絶陽絶陰(厥陰)으로 표현되어 있다. 陰中之陰이니 陰中之陽이니 하는 표현은 卦의 구성원리처럼 陽卦인데 陰이 있고 陰卦인데 陽이 있는 의미를 통해 陰陽의 分化가 陰陽의 절대적인 단절이 아니라 상대적인 偏差의 반영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陰中之陰 陰中之陽은 四象 分化的인 표현방법으로 된다.

둘째, 太陽과 陽明의 관계에는 '陽進'의 원리가 들어있고 太陰과 厥陰의 관계에는 '陰退'의 원리가 들어있다. 陽進 陰退의 원리는 陰陽의 四象分化的 樣相을 표현한 것으로 四象分化的 象이다.

셋째, 開闔樞의 묶음이 '太陽-陽明-少陽' '太陰-厥陰-少陰'으로 '太陽에서 少陽'으로 '太陰에서 少陰'으로의 묶음 형식을 지닌다는 것이다.

결 론

陰陽離合論의 陰陽離合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陰陽離合論의 陰陽離合이 제기하는 問題意識을 따라 陰陽離合論의 陰陽離合의 理論形成과 論理構造를 把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道論을 기반으로 하여 陰陽의 離合과 三陰三陽의 離合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먼저 陰陽의 離合은 (1) 陰陽의 離는 陰陽이 天地 日月이 되어 四時로 分化하여 만물을 낳고 만물의 生長收藏에 應하여 陰陽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고 (2) 陰陽의 合은 陰陽이 서로 分離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그 짝하여 의존함(待對)을 잃지 않고 하나의 整體性을 가짐을 의

미한다. 둘째, 三陰三陽의 離合은 陰陽이 天地(空間的 의미) 日月(時間的 의미)이 되어 天覆地載하여 만물을 낳고 四時에 應하여 生長收藏하는 순환 반복 운동의 다양하고 복잡한 樣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分化象된다. 셋째, 陰陽의 離合의 論理構造形成은 陰陽의 離合은 人間에 應하여 太衝, 廣明으로 되고 三陰三陽의 離合은 人間에 應하여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厥陰, 少陰이 되어 이들 陰陽이 각각 六合의 空間構造속에서 上下, 前後, 表裏의 짝이 되어 (1) 三陽은 太陽開, 陽明開, 少陽樞의 三陽經의 순환운동을 이루어 離하고 (2) 三陰은 太陰開, 厥陰開, 少陰樞의 三陰經의 순환운동을 이루어 離하고 (3) 三陽經은 一陽이 되어 合하고 (4) 三陰經은 一陰이 되어 合하고 三陽經과 三陰經은 一周하여 이에 人間에 應하여 氣裏形表하는 陰陽相成(合)을 이룬다.

참고문헌

1. 김상섭, 易學啓蒙-朱熹 圖書易의 해설, 서울; 예문서원, 1999.
2.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3), 서울; 한길사, 2002.
3.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著,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8.
4. 민중서림편집국, 漢韓大字典, 서울; 민중서림, 2000.
5. 方立天 著, 이기훈, 황지원 옮김, 문제로 보는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7.
6. 邵雍 撰, 皇極經世書-中國子學名著集成(093), 中國; 中國子學名著集成編印基金會印行, 明萬曆34年.
7. 王冰 註,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醫書局, 中華民國 61年.
8. 王弼著, 임채우 옮김, 老子, 서울; 예문서원, 2000.
9. 莊子 著, 안동립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2002.
10. 朱伯崑 의 지음, 김학권 옮김, 주역산책, 서울; 예문서원, 2001.
11. 陳鼓應 著, 최진석, 김갑수, 이석명 옮김, 주역/ 유가의 사상 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1996.
12. 陳來 著, 안재호 옮김, 송명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1997.
13. 馮友蘭 著, 鄭仁在 譯, 중국철학사, 서울; 형설출판사, 1979.
14.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김민석 옮김, 반두링론, 서울; 도서출판 새길, 1987.
15. 이응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회지, 10; 1), 1996.
16. 조학준, 윤창열, 황제내경의 성서시대에 대한 고찰,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소논문집, 7; 1), 1998.